



2026. 9. 18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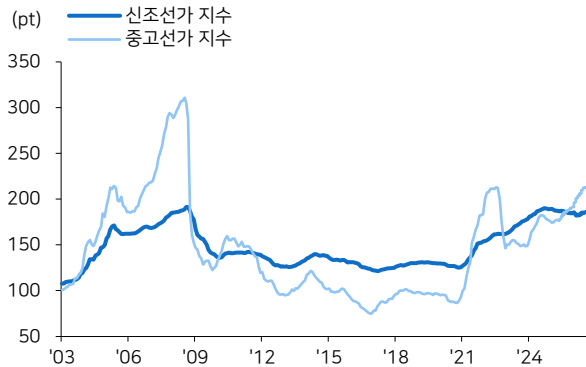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3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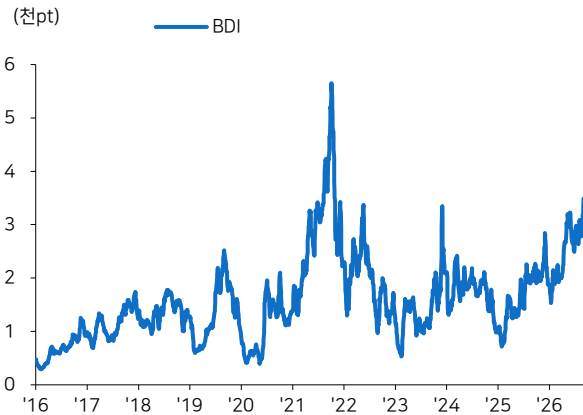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30.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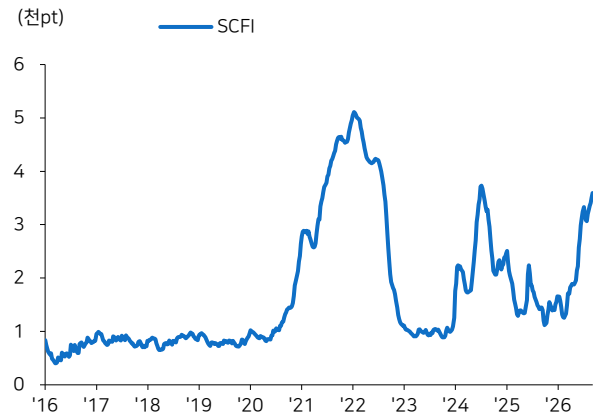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327.0p (-3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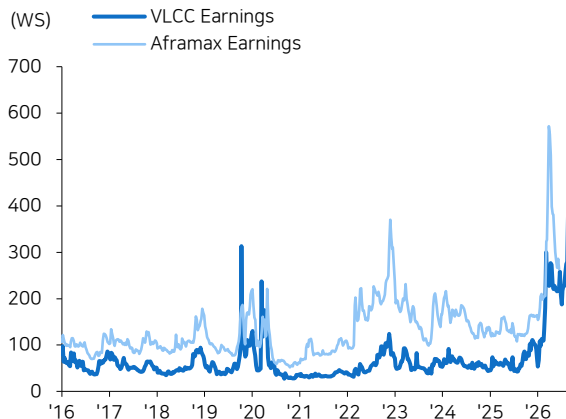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662.2 (+72.1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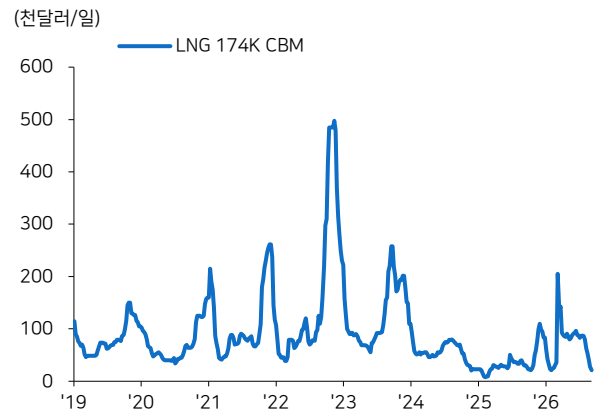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677.4WS (+235.5p WoW)



LNG Spot 운임

27.3천달러 (+6.3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미 전쟁부 부차관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찾았다... '마스가' 속도 빨라지나 (세계일보)

<https://zrr.kr/tMZjwV>

미국 국방부의 조지 르무어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기간 중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생산시설과 충남급 호위함 건조 현장을 둘러보며 한미 조선·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됨. 이번 방문은 미 해군이 한국의 충남급과 일본의 모가미급을 차기 호위함 후보로 검토하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한화오션이 건조 중인 충남급 5·6번함과 생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해짐. 업계에서는 최근 미국 해군 고위 관계자들의 한국 조선소 방문이 잇따르면서 한미 조선협력(MASGA)과 국내 조선사의 미 군함 건조 시장 진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알려짐.

### 임주성 대사 "한화오션·HD현대중, 그리스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논의 진전" (더구루)

<https://zrr.kr/McfbUP>

주그리스 한국대사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그리스 해군·해안경비대 사업과 신형 잠수함, 무인함정 프로젝트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실제 입찰 참여 검토 단계까지 진전됐다고 보도됨. 한화오션은 ONEX 그룹, HD현대중공업은 Skaramangas 조선소와 각각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지 건조와 기술 이전, MRO를 포함한 그리스 해군 현대화 사업 공동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짐. 그리스는 2036년까지 약 280억 유로를 투입하는 국방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양국 협력이 지중해·유럽 방산 시장과 한미 조선협력(MASGA)까지 연계되는 삼각 협력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짐.

### 한화 필리조선소 증설 본격화...옛 美해군 조선소 내 건물 임대 (더구루)

<https://zrr.kr/ANJPAf>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조선소의 사무 기능을 별도 건물로 이전하고 수변 부지를 생산 공간으로 재편하며, 50억달러 규모 필리조선소 증설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보도됨. 이번 부지 재편은 행정 인력을 약 5,981㎡ 규모의 장기 임차 사무공간으로 이전해 기존 야드의 선박 건조·조립 면적을 확대하는 사전 작업으로, 연간 건조능력을 1~1.5척에서 최대 20척으로 늘리는 계획과 맞물려 진행된다고 전해짐. 한화는 도크·안벽 증설과 블록 생산기지 구축, 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MR 탱커와 LNG 운반선, 15억달러 규모 NSMV 건조 물량을 확보하며 미국 내 상선·군함 생산 거점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알려짐.

### 한화오션, 해군 이지스함 창정비 첫 수주...민간 외주 시대 연다 (데일리방산)

<https://zrr.kr/qzNrUS>

한화오션이 해군의 세종대왕함(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창정비를 수상함 최초의 민간 주계약자로 수주했으며, 2026년 9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정비를 수행한다고 보도됨. 이번 사업에서는 민간 주계약자가 전문 MRO 업체와 원제작사(OEM)를 총괄하는 하이브리드 정비 모델을 처음 적용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표준 점검 체계와 선박 안전 기준을 활용해 함정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고 전해짐. 해군은 숙련 정비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MRO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30년대에는 통합 창정비 모델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 이지스 구축함·호위함 등 전 함대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알려짐.

### HD현대삼호, 개정 IGC Code 적용 LNG 선 개발 (한국해운신문)

<https://zrr.kr/9Ao8EQ>

HD현대삼호가 ClassNK와 개정 IGC Code를 적용한 LNG 운반선 공동 개발에 나서며, 2028년 시행 예정인 국제 안전규정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설계 검증을 추진한다고 보도됨. 양사는 비상차단장치, 화물 배관 재질, 압력도출밸브 연계, 화물탱크 충전 한도 등 개정 규정의 핵심 항목에 대한 기술 검토를 공동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이번 협력을 통해 HD현대삼호는 향후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국제기준에 적합한 LNG 운반선 설계를 조기에 선주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짐.

### 호주 정부, 오스탈 USA 매각 '불간섭' 원칙 고수 (더구루)

<https://zrr.kr/G2OCru>

호주 정부가 오스탈 USA 인수전을 오스탈 이사회와 주주들이 결정할 상업적 거래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개입이나 인위적 차단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보도됨. 이번 방침으로 한화의 정치적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오스탈 창립자 존 로스웰 전 의장도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한화 인수를 공개 지지하며 협상 여건이 개선됐다고 전해짐. 현재 인수전은 한화와 미국 투자사 와일드캣 인 프라스트럭처의 2파전으로 진행 중이며, 양측 모두 오스탈 이사회로부터 실사 권한을 부여받아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짐.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